

본지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에게 대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2회에 걸쳐 '예비후보자 지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호는 두번째로 정책질문(공통질문) 5개와 개별 신상질문 각 1개씩에 대한 답변 내용을 게재합니다. 각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면 배치는 형평성을 고려해 '정당 순서에 이름 가나다순'으로 정했으며, 이에 따라 좌측부터 박용기, 손문영, 안종복, 정문헌(이상 한나라당), 송훈석, 신창현, 이동기(이상 민주당), 황정기(무소속)순의 편집이 이뤄집니다. 앞으로도 본지 총선 관련 기사는 이런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신창현 후보=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국회 연수원 사업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국회 기획재정부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동기 후보=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난 2008년 건립확정이 되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중단이 되어 왔습니다. 정치환경이 변화하여도 또 다시 건립이 지연되거나 재검토되는 일이 없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부지구입비 및 실

시설계비 43억9000만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착공을 시작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연수원 건립의 반사이익이 타지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무소속 황정기 후보**= 국회연수원은 저

의 안목으로는 2012년 실시설계 2013년 시공을 위한 일정으로 보여집니다. 만에하나 안되거나 연기시에 대비하여 건립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타당성을 가지고 설득하여 반드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질문 4

금강산육로관광의 중단으로 거진, 현내면 지역 상가들이 잇달아 폐업하는 등 지역 상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 손문영 후보= 고향발전을 염원하며 금강산철도와 도로, CIQ, 공용야드 등의 공사를 직접 지원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루빨리 남북관계가 풀려서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저 또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관광중단이 장기화되면 고성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역상가 활성화를 비롯한 관련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한나라당 안종복 후보= 고성군민들의 잘못으로 금강산육로관광이 중단되었습니까? 대북정책의 실패로 피해는 고성군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안종복은 이를 위해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아닌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특별법」이 고성군민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 직접적인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정문헌 후보=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육로관광이 재개되어 고성의 실물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개되기 전까지의 피해와 관련, 육로관광 중단에 따른 일자리 창출 특별지원과 피해 상가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취업활동수당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 송훈석 후보= 현 정부출범이후 금강산육로관광이 중단돼 고성군 지역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변화로 인해 주민들은 재난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특단의 지원과 배려가 있

어야 합니다. 금강산관광은 비군사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상징만큼 조속히 재재될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18대 국회에서 '금강산관광재개 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국회의견을 모아서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민주당 신창현 후보= 한나라당의 반대로 금강산 관광길이 막혔습니다. 금강산 관광길 재개는 북한을 위한 것 보다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러시아 가스관과 철도를 삼척까지 연결하는 등 설악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동기 후보= 고성군 북부지역

의 경제상황은 회생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현재 통일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내년 상반기 금강산 관광 재개를 목표로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 경유형 관광지에서 정주형 관광지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무소속 황정기 후보= 정부는 2008년 이후 북한에 진상규명 재발방지역속 등을 요구하였으나 교착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성지역의 경기가 매월 약30%정도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사후문제로 전면 재검토 하여 통일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질문 5

최근 속초지역 사회단체들이 설악권 4개 시군(속초-고성-양양-인제)의 통합을 건의한 가운데, 고성지역에서는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반대활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설악권 통합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 손문영 후보=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감소 추세속에서 1개 시군민의 역량으로는 주민들 삶의 질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이 졸속추진시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일으키고 통합의미도 퇴색됩니다. 따라서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지역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시군간 행정연대를 통해 설악권 4개 시군의 브랜드가치와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안종복 후보= 설악권 통합이 교부세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위한 것이라면 반대입니다.

하지만 통일을 대비한 설악권이 되어야 한다면 설악권 통합은 대담하고도 세심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합과정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분단과 통일, 그리고 화합된 설악권이 되어 글로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통합이 필요합니다.

한나라당 정문헌 후보= 북고성을 따로 남겨두고 설악권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편으로 고려

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고성은 설악권이라기보다 금강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설악권통합 논의에 포함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송훈석 후보=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자생력 제고, 그리고 주민생활 편리 등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시군행정 통합은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주민주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이고 기계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해 통합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통합대상지역과 주민들간의 갈등과 분열이 없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민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하고도 세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신창현 후보= 설악권 통합이 발전이 아니라 어느 한 시군의 피해를 가져온다면 통합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성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인접 시군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다면 굳이 통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살려 지역을 발전시키자는데 있습니다. 통합여부는 주민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시군통합은 지역 간의 갈등만 조장할 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다

시 중앙집권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통합으로 지역이 더 발전한다면 고성 군민들도 찬성할 것이며, 저 또한 찬성할 것입니다.

민주당 이동기 후보= 설악권 통합의 입장에 앞서 먼저 특정지역에서의 일방적 통합주장에 대한 논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여러 이유 중 하나도 통합할 인근 지자체와의 사전 논의나 교감도 없이 일방적

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군 경제연합체 구성을 시작으로 통합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우선이라 할 것입니다.

무소속 황정기 후보= 저출산 고령화등 우리사회는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 에다 광역 통신망의 확대로 이제는 통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잦은 일부의 논리는 안 될 것입니다. 선행 조건은 주민의 합의입니다.

정기구독자 모집

- ◇구 독 료 : 월 4,000원(1년 선금 4만원)
- ◇입금계좌 : 농협 301-0072-9350-81
- ◇예 금 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주식회사 고성신문
문의 ☎033-681-1667